금석문 보존대책 '발등의 불'

◇원형을 알아볼 수 없게 파손된 선각왕사(나옹화상)비. 훼손 3주가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다.

지광국사현묘탑비등 곳곳 방치 '훼손 가중'

비문판독 불가능…통풍막는 보호각도

3월30일 발생한 산불로 훼손된 회암사지 선각왕사비(보물 제387호·본지 122호 18면 보도)를 계기로 금석문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각왕사비는 훼손된 지 3주가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는가 하면, 탑골공원 안에 있는 대원각사비(보물 제3호)는 보호각 설치가 늦어지고 있어 비둘기 배설물과 산성비 등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경복궁안에 있는 보리사 대경대사탑비(보물 제361호)는 관람객들이 귀부 목덜미에 올라타 기념사진을 찍는 일이 잦아 같은 귀부의 다른 면보다 훼손이 심하다. 강원도 원주의 법천사지는 동네 꼬마들의 놀이터로 전락, 지광국사 현묘탑비(국보 제59호)의 경우 금이 가고 파손이 심해 강한 바람이 불면 넘어갈 듯 위태롭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탑 비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각을 설치 보존하고 있으나 때로는 보호각 자체가 통풍이 안 되고 자연빛을 막아 이끼류가 서식하는 등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이끼류는 명문해독을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 보호각 설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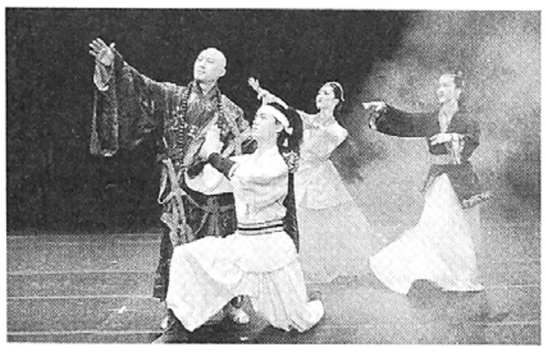
월남사지 석비(보물 313호·전남 강진) 역시 보호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상반부가 부서져 없어졌고 비면은 풍화작용으로 판독이 거의 불가능하다. 신륵사 대장각기비(보물제230호·경기도 여주)는 손상이 많아 현재 보호각을 설치 보호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탁본으로 시커먼 흔적이 곳곳에 남아 관람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고승들의 탑비, 사적비 등 고대의 금석문은 한국불교문화사 연구의 1차적 사료로써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고려말 이후의 금석문은 제대로 정리가 안돼 있어 훼손될 경우 불교사의 단절을 가져온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또한 실물에 대해 원초적인 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의 판독만을 대조, 연구하고 있어 잘못된 판독이 고정돼 간다는 지적도 있다. 글자의 판독은 마멸이 심할 경우 육안으로 파악하기 힘들어 광개토대왕릉비와 같이 왜곡된 판독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판독과 연구가 필요하다. 금석문 연구에 있어 전공자들의 절대 부족으로 '금석문학회'를 꾸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이로 인해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산산조각난 화엄사석경(보물 제1040호) 파편은 아직도 복원되지 못한 채 상자에 넣어져 각황전내 한쪽 구석에 내버려져 있다.

이와 관련 김상현교수(동국대 사학과)는 "금석문을 주로하는 전문인력이 많이 나와 이를 사진, 슬라이드, 탁본 등으로 자료화하고 정리하여 올바른 보존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기석 기자



◇불교전파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차돈의 삶과 구도의지가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춤극으로 펼쳐진다.

순교자의 생애 춤극으로

이차돈의 하늘 5월1~6일 국립극장서

이땅에 불교를 전파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순교자 이차돈의 생애를 그린 춤극 '이차돈의 하늘'이 봉축 특별공연으로 5월 1일부터 6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토·일 오후 4시)에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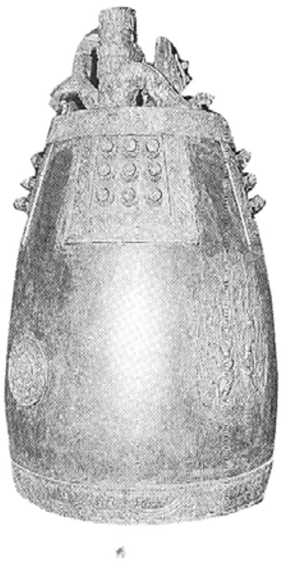
국립무용단장 국수호씨의 대본과 안무, 국립국악관현악단장 박범훈교수의 작곡·지휘로 공연되는 '이차돈의 하늘'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부마의 자리를 뿌리치고 국외로 추방을 당하면서까지 달아기를 택했던 이차돈의 사랑과 삶, 구도자로서 겪어야 했던 갈등과 고뇌, 그리고 살신성인의 보시행이 드라마틱한 춤극으로 엮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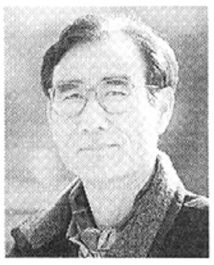
이 작품은 지난 88년 서울올림픽 문화축전의 작품 공모에 당선된 것으로 국수호씨가 현재적 시각의 역사감각을 도입해 새롭게 안무했으며, 음악과 의상 무대장치 등도 새롭게 변화를 주었다. 또한 기존의 관례를 깨고 공개오디션을 통해 주요 배역을 선발해 배역에 맞는 역동적이고 참신한 춤의 향연을 맛볼 수 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불교연합합창단 국립창극단 등 350명이 무대에 오르는 이번 공연은 장대하고 웅장한 음악이 매머드 합창단과 어우러져 우리 민족의 영원한 수퍼스타 이차돈을 오늘에 되살리고 있다.

이경숙 기자

4월말 일반공개 상원사종복원 석우일씨





"맥놀이현상 그대로 재현"

신라과학 신비풀기 20여년 정열쏟아

"3분이상 지속되는 은은한 여운의 맥놀이 현상을 되살릴 수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상원사종(국보제36호)을 최근 실물과 가깝게 만들어 내놓은 신라역사과학관의 석우일 관장(57세). 그는 1년여간의 작업을 거치면서 실물과 같은 규격과 재질을 사용, 용뉴와 비천 등 신라종의 특징을 골고루 갖춘 제2의 상원사종을 제작했다. 모형 상원사종은 이달 말 타종식을 갖고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석관장은 석굴암·첨성대 등 우리의 옛 문화재 실물복원으로 유명하다.

20년전 유리벽속의 석굴암이 못내 아쉬워 복원을 시작한 그는 완벽한 재현을 위해 건축과 수학 등과 불교공부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같은 석우일관장의 노력은 세계 각 박물관에 알려져 석굴암, 첨성대 등 각종 과학문화재의 축소모형을 전시하고 싶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고. 〈석〉

문화정보화 단체 뽑혀

목아불교박물관(관장 박찬수)과 나눔의 집(원장 혜진스님) 등 30단체가 문화체육부에서 추진하는 '문화정보화운동' 지원단체로 선정됐다.

이들 단체들이 소장한 각종 자료들은 사진 동영상이 포함된 디지털자료로 만들어져 인터넷공간에 올려진다.

목아불교박물관은 불상 서화 금속 등 문화재를, 나눔의 집은 정신대문서 증언 사진 유품 들을 가상공간에 올리게 되며 이들 단체의 홈페이지는 연말까지 구축된다.

문화소식

한국건축박물관 상량

(사)한국문화재보전수리기능인협회 전흥수회장(대목수)이 한국건축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지난 22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 현지에서 상량식을 가진 건축박물관은 한국고건축에 관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전시장겸 교육장이 된다.

대지 5천여평에 연건평 1100여평으로 이루어지는 건축박물관은 전시실 양반가옥 평민가옥 초가 등 우리 전통 양식을 보여주는 건물과 연수원 중국관 일본관 등 10개의 건물과 광장 등으로 이루어진다. 박물관이 완공되면 기능인들의 기능전수 현장과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인식시키는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내년 '사진영상의 해'

문화체육부는 지난 15일 내년 98년을 '사진영상의 해'로 지정하고 사진영상예술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체부는 지난 91년을 연극영화의 해로 정한 이래, 매년 춤, 책, 국악, 미술, 문학, 문화유산의해로 정하고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해 왔다.

불심시심 〈85〉

도연명이 나를 부르네

飛閣浮空壓大湖 (비각부공압대호)	푸른 하늘에 뜬 누대 호수를 눌러
晩江煙景浩難圖 (만강연경호난도)	저문 강 탁 트인 풍경 표현키 어렵구나
寒穿水色雁歸浦 (한천수색안귀포)	추위 물빛 뚫자, 기러기 바다로 가고
冷踏山光客上橋 (냉답산광객상교)	싸늘한 산빛 밟자, 나그네 다리 건너다
甁聳雲邊千嶂列 (병용운변천장렬)	구름 가 솟은 술병 뭇 봉우리의 나열이고
玉流天外萬溪高 (옥류천외만계고)	하늘 밖으로 흐르는 구슬 온갖 시내 드높다
斜陽人帶暮霞去 (사양인대모하거)	지는 해 노을 띠고 가는 사람을
五柳仙翁挽手邀 (오류선옹만수요)	오류의 선옹이 만류해 마지 않네

이 시도 송계대사의 시이다. 영천의 호연정(浩然亭)에서 지은 시. 제목대로 강가의 호연정을 배경으로 주변의 풍경을 여실하게 묘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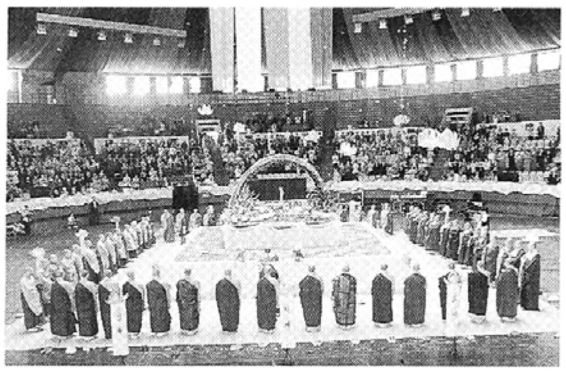
첫구에서 하늘이 큰 호수를 눌렀다 하였다. 시 전편을 이미 압도하는 작자의 기상처럼 매섭다. 이러한 표현은 시인들의 일상적 수사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구에서 호연정이란 정자 이름에 맞춰 '묘사하기 어려우리만큼 넓다(浩難圖)'고 하기 위한 시적 구도였다는 점에서 작자의 의도적 수사이었음을 이해하게 한다. 하늘 그림자가 호수에 가득히 떠 있음으로 해서 하늘과 호수가 맞닿아 있음을 수천일색(水天一色)이라 하여 흔히 쓰는 시어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누른다'는 한 단어로 더 기를 돋우었다.

다음 연의 수사는 역설의 극치를 달리고 있으니, 감각의 언어일 수밖에 없는 추위와 서늘함을 동작화하여 계절의 변화를 가시화하고 있다. 추위가 물빛을 뚫고 싸늘함이 산빛을 밟는다 하였으니 일상성의 배반(反常)이다. 그러나 이 반상이 시의 묘미를 살리는 것이다.

다음 연의 수사도 재미있다. 폭포를 '구슬의 흐름(玉流)'이라 함이야 흔히 있을 수 있지만, 솟아오른 산봉우리를 술병으로 유추함은 흔한 일은 아니다. 더욱이 독자를 당혹하게 하는 것은 시내가 높다(高) 함이다. 시내와 높다는 단어는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그러함에도 이 시에서는 이 한 단어가 흥미를 끈다. 하늘 밖으로 흐르는 옥수라 한이 하늘 밖(天外)이라는 앞 구가 있어 절묘하게 살아나는 것이다.

이런 경관에서 스님은 옛날 오류선생인 도연명과 망도의 사귐을 가졌던 혜원으로 자처하여 그의 손짓에 이끌리는 신선으로 결론지었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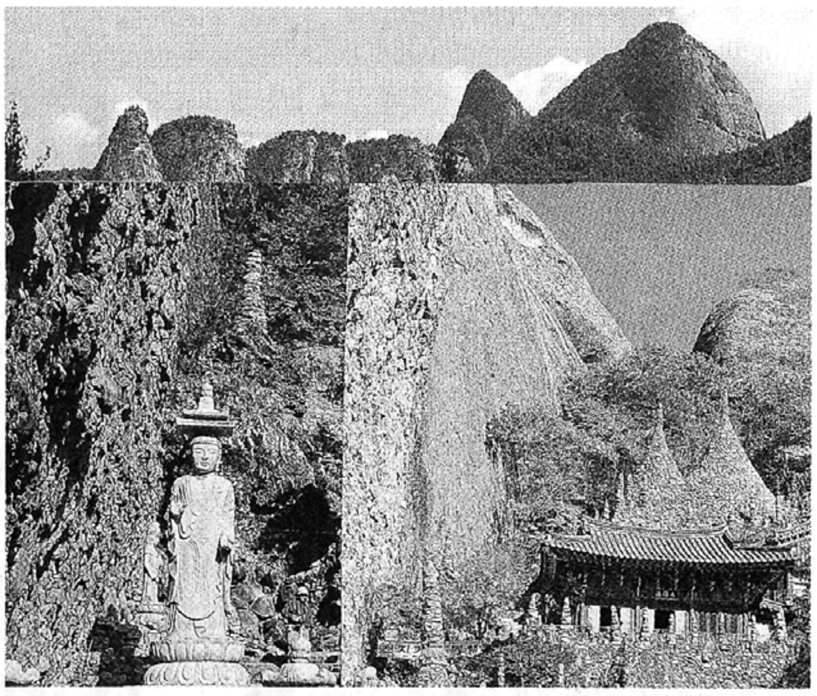


만등만화 육법공양

조계종 연화정사(주지 정명)와 연화플라워회가 주관한 만등만화 육법공양대법회가 지난 12일 장충체육관에서 2천여명의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기법스님의 타종을 시작으로 향 등 차 꽃 과일 곡식의 여섯가지 공양을 차례로 올렸고, 바라춤 나비춤 등도 선보였다. 특히 꽃공양 순서에는 부처님께 모란 작약 연꽃 등을 올리는 불전공화를 시대별로 재현해 눈길을 끌었다. 3부 합동결혼식에는 어려운 형편으로 식을 올리지 못했던 16쌍이 월주스님의 주례로 부부의 연을 맺어 감동을 더했다.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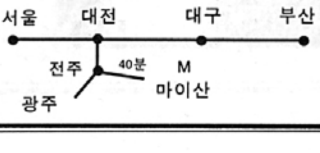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
— 마이트레야의 노래

"길 떠나는 자에게
용기와 지혜 있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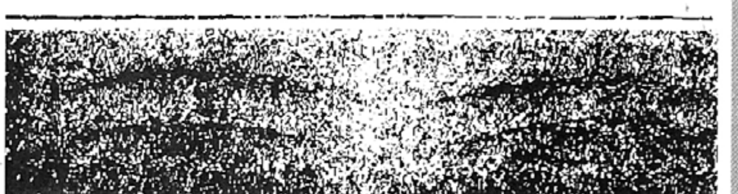
사막의 밤은 고요하다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에선 수많은
영감들이 쏟아져내린다
설산의 은빛 눈부심은
영혼의 바닥까지 드러낸다
길떠남은 아름답다 축복이다
사람들은 여러 모습의 여행을 떠난다
광대무변한 우주를 향해서
극미세계로 더러는 꿈과 추억을 좇아서
더러는 문학 속으로 음악 속으로

여기 새로운 만남과 발견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위한
한 장의 안내지도를 내놓는다

길 떠나는 자에게 용기와 지혜 있으라

—〈글을 열면서〉에서

가람기획
도서출판 가람기획
Tel. 815-1253
823-9105
Fax. 823-9106



혜원스님 지음

'현대인에게 미륵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큰 물음을 던지면서, 불교의 깊은 정신세계와 그 철학을 알기 쉽게 풀이해주고 있는 이 책은 정신과 물질세계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현대인에게 물질과 마음에 대한 순수이해의 문을 열어 새로운 차원의 정신세계로 이끌어준다. 추상적인 이론이나 교리의 차원을 넘어서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불교의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길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책은 현대인이 생활 속에서도 수행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수행지침서이기도 하다.

★신국판/297쪽/지금 곧 서점에서 만나십시오

가람기획의 인문교양 스테디셀러

●선체조 108
고요함과 깨어 있는 삶을 위한 참선체조 수행서/혜원 스님 지음/신국판 292쪽

●한 권으로 보는 불교사 100장면
석가의 탄생에서 성철스님의 입적까지
임혜봉 지음/신국판 430쪽

●그래도 사람은 하늘이다
오늘의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준엄한 물음!
이무열 편저/신국판 356쪽

●서울대 선정 동서고전 200선(전4권)
동서고전 200종을 깊이있게 해설한 본격 해제서!/반덕진 편저/신국판 500쪽 안팎

●한 권으로 보는 세계명작 111선
고전 걸작 현대 문제작 111편 엄선 해설
가람기획 편집부엮음/신국판 432쪽

●한 권으로 보는 한국명작 111선
우리 소설 명작 111편의 내용과 작품 해설
김희보 지음/신국판 467쪽